천년고찰서 느끼는 문화재 美

고창 선운사, 문화재 프로그램 8월 18일 선봬

선운사 대웅보전과 삼존불, 만세루, 지장보살 좌상과 산내암자 도솔암 마애불, 참당암 등 여러 점의 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한 고창 도솔산 선운사(주지 경우)가 전통산사문화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천년고찰 선운사, 그 시간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까지 운영되는 선운사 문화재활용 프로그램은 8월 18일, 9월 15일, 10월 13일, 10월 27일 매회 1박2일 일정에 맞춰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을 맞이한다. 첫 행사는 8월 18일 1박2일 일정으로 선운사 일원에서 오후 2시부터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선운사가 보유한 석씨원류 경판 등 문화재들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 문화재와 관련한 토크콘서트를 열어 문화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신선한 시도가 될 전망이다.이 밖에 다도, 탁본, 서각, 소조상 만들기, 도예체험, 벽화그리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첫날 문화재(인문학 토크) 콘서트에서는 지역 가야금 전수자의 가야금 연주가 예정돼 있어 선운사 경내에 전통문화의 향기가 가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선운사 문화재활용팀 관계자는 "전통산사의 정취를 느끼고 우리 문화재를 바로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선운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박2일에 2만원, 당일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르신 일터 '다방매점' 개소

부산진시니어 24일 개소식… "노인 일자리 모범사례"

부산지역 어르신을 위한 일터 '다방매점'이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범산)에서 운영하는 부산진시니어클럽은 7월 24일 부산시 개금동에 위치한 한국신발관 3층에서 다방매점을 개소하고 첫 출발을 알렸다.



다방매점은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한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공모에 당선됐으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 12명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 예산 3000만원이 투입되며 한국신발진흥센터가 협력한다.

개소식에는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상임이사 정현 스님, 부산광역시 장노년지원팀 정권철 팀장, 부산진구청 주민복지과 박영진 국장, 한국신발진흥센터 안광우 센터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다방매점 개소를 축하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문화에 푹 빠진 외국인 유학생들

전북불교네트워크, 유학생 대상 불교문화체험

전북지역 대학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오종근)는 7월 20일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불교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어서와! 한국 문화와 놀자!'란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잠비아, 조지아, 과테말라, 키르기스스탄, 중국 청년들과 대만에서 온 단기문화체험 학생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사찰음식을 비롯한 자연음식의 정신을 배우고 연잎영양밥, 김장아찌, 녹두전 등을 직접 만들었다. 또한 한지 전통등을 제작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대만에서 온 주이난(21) 학생은 "재료를 직접 다듬어서 한국 전통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다"며 "음식솜씨가 없어서 평소 한국 식당에서 먹던 맛보다는 못했지만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먹으니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율과 함께한 백중 기도 '화제'

홍법사, 강형진 단장 재가법사 초청 음악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백중 우란분절을 특별하게 기념하는 음악법회가 봉행됐다. 부모에게 못 다한 효가 아픔이 되어 상처로 남은 대중은 강형진 니르바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이 연주하는 음악에 눈물지었다. 눈물은 이내 기도가 되어 부처님께 간절히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간절함으로 바뀌었고, 강연이 끝나자 큰 박수와 환호가 법당에 울려 퍼졌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7월 22일 대적광전서 봉행한 백중법회에 강형진 니르바나필하모닉 단장을 재가법사로 초대해 특별한 치유법회를 선보였다. 강형진 단장은 국내 유일한 불교 오케스트라 니르바나필하모닉을 이끌며 수십 년 동안 찬불가 대중화 및 전문화를 위해 활동한 음악가다.

'그리움'이란 주제로 강형진 단장은 먼저 영화 '사랑과 영혼' 주제가를 성악곡으로 맞춰 편곡한 음악을 들려주며 죽음에 대한 상실과 아픔을 설명했다. 이어 동요 '섬집아기'를 들려주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끌어냈다. 강 단장은 돈황본 육조단경에 무념·무상·무주를 음악에 맞춰 쉽게 설명하고 팔정도를 지켜야 하는 바른 삶의 중요성도 덧붙여 강조했다.

강 단장은 "죽음으로 잃어버린 인연 가운데 가장 그리운 이름은 '엄마'일 것"이라며 "유한한 삶을 닮은 음악은 무념과 무상 그리고 무주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음악을 통해 불교의 참된 가르침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서는 홍법사 동림어린이 합창단이 참여해 함께 공연했으며, 자모회 세향기도반에서 10만배 수행 입재 100일을 기념하며 템플스테이관 건립기금 3000만원 약정식도 진행됐다.



홍법사는 새로운 법회 형식을 선보이고자 강형진 니르바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을 재가법사로 초대해 음악법회를 진행했다.

음악과 함께한 부처님 말씀
대중 위로 도움, 호평 받아
시대변화 맞춘 新법회 평가
"다양한 방법으로 佛法 전파"

자모회 세향기도반은 현재 10만배 수행을 진행 중이며, 기도 후 매일 1000원씩 보시하고 불사 동참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법회 후 심산 스님은 수행 100일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참가자 수행집에 〈금강경〉과 〈천수경〉에 나오는 무위심(無爲心)을 적어주며 헤아림 없는 마음, 상이 없는 마음으로 정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대중은 음악과 함께 한 강연이 쉬운 설명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10만배 기도 수행에 동참하며 불사에도 함께해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숙 홍법사 어린이청소년교육연구소장은 "오늘 많은 대중이 눈물 짓고 감동받는 모습에 저도 함께 행복했다"며 "음악과 부처님의 법으로 치유 받는 시간이었으며 특히 자모들이 함께 동참해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감해경(56) 불자는 "절 수행에 동참한 것도 기쁜데 뜻 깊은 불사에 함께 하고 오늘과 같은 법회에 참석해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새로운 음악법회는 문화 예술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새로운 법회 형식을 구상하고 도전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색다른 법회로 좋은 사례가 됐다는 평가다.

주지 심산 스님은 "시대가 변하면 법을 담는 형식도 새로움을 추구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교계에서 유일한 오케스트라인 니르바나필하모닉은 이런 의미에 적합하고 불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자모반 세향기도회 10만배 수행에 대해 "젊은 불자 포교와 신심을 위한 능동적인 활동이며 내부적으로도 정말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격려했다.

해영사 상량 "장엄한 불사 이룩하길"

천태종, 22일 법요식
연면적 2,475㎡ 규모

천태종이 부산 해운대구에 불사 중인 해영사의 대들보를 들어올렸다.

천태종은 7월 22일 해영사 경내에서 법당 상량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문덕 스님, 해영사 주지 세운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했다.

천태종은 현재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부지면적 696.3㎡(211평), 연면적 2,475㎡(750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새로운 천태도량 해영사를 건립 중이다.

법요식은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경과보고 △개회사 △상량문 낭독 △상량법어 △치사 △축가 △축원 및 정근 △상량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등 내빈이 해영사 상량식에서 상량하는 모습.

종정 도용 스님은 "장산의 힘찬 기운이 이 자리에 머무르니 관음보살 자비 손길 금빛 물결로 일렁이며 천태의 사부대중 신심으로 모여들어 좋은 인연 뜻을 모아 큰 불사를 일으켜 세운다"며 "선근공덕 싹이 터서 꽃봉오리 아름다워 큰 공덕의 결실을 약속하는구나. 일심으로 기도하며 정진하고 정진하여 장엄한 불사를 이룩하라"고 상량법어를 했다.

주지 세운 스님은 "스스로 부단히 정진해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은 불자의 사명이다. 천태종도들은 억조창생 구제중생을 실천하기 위해 해영사 건립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삼보와 외호신장들이 보호하는 청정도량이 되도록 낙성 때까지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영사는 1998년 부산 해운대에 종교부지로 땅을 매입, 2015년 8월 22일 종정 도용 스님에게 해영사(海永寺)라는 사찰명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21일 정부기관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11월 9일 기공식을 봉행했다. 해영사는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불사 기간 중 지역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쌀 나눔, 장학금을 전달해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해영사는 부산에 천태종을 전파한 이래 삼광사, 광명사, 용평사, 정법사에 이어 5번째로 건립하는 사찰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